

대국민 연설 예고한 트럼프, 셀프종전 구상 밝힐까

'2-3주 내' 제시 "합의타결 여부 무관"...커지는 일방적 종전 가능성 '셀프종전'으로 손 떤다 해도 호르무즈 여파로 유가 불안 계속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고 이란과 협상을 하는 와중에 대국민 연설을 잡은 것인데, 전쟁 장기화의 부담 속에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손을 떼는 방식의 '셀프종전' 구상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계획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저녁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다. 연설 시간은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해 중요한 진척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만 소개했다. 레빗 대변인이 게시물을 올리기 불과 1시간30분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했는데 대국민 연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국민 연설이 갑자기 잡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설지다.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를

부각하고 자찬하는 내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선택지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이나 힌트가 포함될지가 핵심이다. 레빗 대변인 발표 직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문답을 보면 본인이 구상하는 종전안의 윤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 '2주나 3주 내'를 거론했다. 본인이 현재 업무에 둔 종전 시점을 밝힌 셈이다. 이란과의 합의 타결 여부가 이란 전쟁 종료와 무관하다는 언급도 했다. 협상 타결을 통한 종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 및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 종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한 채 2-3주만 더 버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떼길 기다리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협상 타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언 역시 이란의 협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며 질차를 밟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석유 의존도가 큰 나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되면 유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 통행료 징수로 '호르무즈 병목'이 계속되거나 유가에 반영될 추가 비용이 커질 경우 유가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중동에 집결시킨 정예 부대를 투입해 미국의 승전 근거로 내세울 확실한 성과를 얻는 방안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 결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상군 투입은 아무리 작전 범위가 좁더라도 위험 부담이 크다. 자칫 미군에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날 경우 대이란 '보복'을 바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미국이 장기전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출구'를 선택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국민 연설 역시 종전 구상을 작·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연일 거론하고 있는 미군의 성과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끝낼 수도 있다. /연합뉴스

달 향하는 우주선 '아르테미스 II' NASA, 50시간 카운트다운 시작

약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비행선 '아르테미스 II'의 발사를 이틀 앞두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AP통신 등은 NASA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아르테미스 II' 발사를 위한 총 49시간40분 길이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NASA에 따르면 이날 카운트다운 시작과 함께 발사 준비팀이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통신망 점검과 극저온 액체수소 및 액체 산소 주입을 준비하고 있다. 발사 16시간 전부터는 39B 발사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며 4시간 전에 우주비행사들이 오리온 항공기에 탑승한다. 발사는 1일(현지시간) 오후 6시24분(동부 시간 기준)에 이뤄질 예정이다. 발사 당일 기상 조건이 양호할 가능성은 80%인 것으로 NASA 측은 내다 보고 있다. 강풍과 구름이 변수가 될 예정이다.

찰리 블랙웰-톰슨 발사 책임자는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우리 팀이 엄청나게 힘들게 일해왔다"며 "모든 정상상 현재 우리는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낙관했다. 만약 날씨 변수로 발사가 미뤄지더라도 4월6일까지는 발사에 적합한 환경으로 NASA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아르테미스 II'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년 만에 달 궤도로 향한 유인 우주선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캡슐은 지구 궤도를 돈 뒤에 달을 유턴하듯이 한바퀴 돌고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이번 비행에는 유색인종과 여성, 케냐인 우주비행사도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그간 아폴로 프로젝트에서는 미국 국적의 백인 남성만 참여해왔다. 흑인 우주비행사인 빅터 글로버는 "언젠가는 더 이상 '최초'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발사 대기 지난날 3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서 차세대 달 탐사 로켓인 SLS(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과 오리온 유인 캡슐을 탑재한 NASA의 아르테미스 II 달 근접 비행 임무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인니, 하루 연료 판매량 차량당 50리터로 제한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세계 각국이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하루 연료 판매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리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장관 장관은 전날 "연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소비자의 경우 차량당 하루 50ℓ라는 합리적 한도를 적용해(연료) 구매를 규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안보 등 필수 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매주 금요일 재택근무를 하고 공용 차량 사용은 절반으로 줄인다"며 "정부 관계자의 출장도 최대 70%까지 감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2개월마다 상황을 검토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중동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스리랑카도 지난달 15일부터 연료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는 주당 15ℓ,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은 주당 최대 200ℓ의 연료를 할당받는다.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다른 여러 나라들도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일부 국가들과 달리 당분간 연료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중우한서 로보택시 100여대 '집단멈춤' 승객 고립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기술 대기업 바이두가 운영하는 로보택시 '웨이보콰이파오'(아폴로고)가 집단 고장을 일으켜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1일 중국 불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우한 시내 곳곳에서 다수의 로보택시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며 승객들이 차내에 고립되는 상황이 잇따랐다.

한 시민은 "가족과 함께 외출했는데 차가 고가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며 "뒤에 오던 차량이 급하게 피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관은 "관할 구역에서 100대가량의 로보택시가 동시에 신호가 끊겼다"며 "도로 곳곳에서 승객들이 차에서 내리지 못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